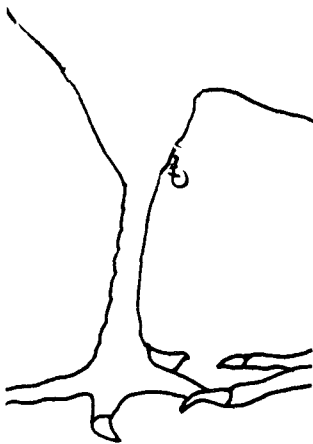


세계의 養鷄産業



이란편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
여 정 수 제공



인구 3,130만에 국토면적이 우리나라의 8 배에 가까운 165만km²나 되는 이란은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초식가축인 소, 면양 그리고 산양의 사육수수가 많고 닭은 1975년말 5,500만수로서 인구 1인당 1.76수의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란의 가축 사육 현황

	1965	1973	1974	1975
축우	5,060	6,000	6,200	6,500
바팔로(물소)	247	150	140	130
산양	13,006	14,000	14,000	14,000
면양	30,410	33,800	34,000	35,000
낙타	234	80	70	60
돼지	53	63	65	67
닭	26,408	54,000	54,500	55,000

사막지역이 많은 이란에서는 목초생산량이 적어 초식가축의 지속적인 증식이 어렵고 쇠고기, 양고기, 돼지고기의 값이 비싸므로 가장 값싼 단백질원으로 닭고기와 계란을 이용하기 위해서 급속도로 양계산업이 정부의 뒷받침으로 발전되고 있다.

이란의 대규모적인 경제건설에 병행해서 외국으로부터 고도화된 계사시설, 양계기술 그리고 우수한 품종을 도입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조금도 없이 국내수요에 양계산물의 충당을 목적으로 정부에서는 충분한 배려를 양계산업에 해주고 있다.

1976년에는 농업분야의 종합개발계획을 위해서 70억\$이 책정되어 다른 농업분야에서도 효율적인 자금이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양계부문에서는 새로운 품종개발, 완전자동계사, 양계생산물의 저장과 가공, 기술 훈련 그리고 시장구조 개선을 일정수준까지 올리기 위해 많은 자금이 할당되었다 또 이란정부에서는 중동의 다른 산유국들이 닭고기나 계란을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려는 경향과는 달리 외국의 유명회사와 공동투자농장을 설립해서 좀더 빠른 양계산업의 발전을 꾀한 결과로 영국의 유명한 B.U T(British United Turkey LTD)회사가 이란에 진출하여 대규모의 칠면조 생산공장을 만들었다. 이와같은 공동투자 농장 설립에는 2가지의 조건이 다르게 되는데 첫째로 농장경영에서 얻은 이익은 국내의 수요가 충족될 수 있을 때까지 이란에 재투자를 해야하고 절대적으로 외국으로 이익금을 가져갈 수 없다는 조건이 붙어있다는 것이 정부가 무한히 양계 발전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또 다른 양계산업 발전에 관한 정책은 생산자에게 생산비 중에서 15%의 이익금이 얻어 질수 있는 수준에서 가격을 정하여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각농가들은 양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외국의 여러회사들도 이란의 진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

1. 양계산업의 발전과정

1960년 이전에 이란의 양계는 시골농가에서 몇 십수씩 소규모로 부업적인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었다. 그후 정부에서 농촌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값싼 단백질원으로 양계산물의 이용이 유리함을 알고 여러곳에 대규모의 양계장을 설립하여 점차로 개인에게 인계하면서 부터 서서히 목적했던대로 양계산업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란정부는 양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에 따라 1958년 미국의 원조로 6만수의 뉴햄프사, 로드아일랜드레드, 화이트레드그혼 병아리를 들여와 농가에 분배하였으나 운반중 스트레스와 뉴캐슬과 호흡

기 질환으로 폐사율이 높았으므로 농가에서는 닭을 사육하는데 회의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후 농림부 산하의 라지(RAZI)연구소에서 이들 질병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여 농가에 자신감을 주게 되었고 그다음 해인 1959년에 116만수, 1960년에 133만수 그리고 1961년에 184만수의 병아리를 이스라엘, 홀란드 그리고 영국으로 부터 수입하고 이때부터 이란 국내의 부화업도 시작이 되어 계통부화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1961년에는 대규모 개인양계농장에 년 1,150만수의 병아리를 생산할 수 있는 부화시설을 만들었고 그와동시에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화장을 만들어 병아리 1수 부화에 10원 정도의 비용으로 개인에게 부화를 하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대단한 호응을 받으면서 1970년 부터는 연간 1,000만수가 넘는 병아리를 부화시키고 있는 반면에 1976년엔 연간 150만개를 부화시킬 수 있는 부화기를 12대 수입하여 대규모 부화업체인 아몰(Amol)회사와 다른 부화장에 분배하여 개인 양계업의 발전을 돕고있다.

1964년 까지는 80%이상의 국내실용계가 외국으로 부터 병아리로 수입이 되었으나 그이후 국립 종축장이나 개인농장에서 외국의 우수한 P. S를 들여와 병아리를 직접 국내에서 생산하게 되었고 1969년 이후 부터 국립종축장에서는 수입계를 기초로 이를 재이용하기 위한 교잡시험을 실시하여 능력이 우수한 종계를 육종하였고 이들을 농가에 보급함과 동시에 수입계의 능력검정을 통하여 이란의 양계조건하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는 종계계통만을 수입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실용계 능력은 많이 향상되었다. 최근에 들어와 국립 종축장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민

간 종계장의 협조로서 새로운 품종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양계가들의 기대가 크다.

2. 생산물소비

쇠고기와 양고기의 공급 부족으로 인한 양계생산물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닭고기는 1975년 98,000Ton 생산되던 것이 1976년엔 114,000Ton으로 계란의 생산은 1975년 89,000Ton에서 1976년 153,000Ton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국민 1인당 닭고기는 415kg 계란은 95개정도 소비하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으며 계속적인 국내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정부는 공급부족을 배우기위해서 1976년 7월에 닭고기 23,000Ton과 계란 25,000Ton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되었다.

3. 사육방법 및 규모

브로일러는 콘크리트나 블록 바닥으로 된 평사사육을 가장 많이 하고있고 소규모 농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란계 농가에서는 케이지 사육을 하고 기계화된 시설을 갖추고 있다. 현재 6,000만수에 달하는 닭을사육하는이란은 산란계가 2,000만수 그리고 육계가 4,000만수의 분포이며 농가의 사육규모는 1960년에 전업 채란계 농가의 평균 사육수수가 500수 이던 것이 1970년엔 7,000수에 가까운 수치로 증가하였다.

테헤란 근교에 대규모 양계장들이 주로 집중되어 있는데 산란계 농장 중에서 몇 개소의 대규모 농장은 15만수 이상이나 사육하고있고 30여개소에 달하는 대규모 브로일러농장 중에서 가장 큰 농장에서는 년 평균 100만수 이상의 브로일러를 생산

하고 있다.

4. 품종

가장 인기있는 산란계는 백색레그혼종이나 뉴햄프셔와 백색레그혼의 교잡종도 많이 사육되고 있다.

소규모 농가에서는 난. 육 겸용종인 뉴햄프셔를 많이 기르고 있으며 재래종 산란계인 마란디(Marandi)라는 품종이 뉴햄프셔 못지 않게 농가에서 인기가 있다.

육용종으로는 코니쉬와 화이트록종의교잡종 주류를 이르고 있으나 섹스종과 뉴햄프셔의 교잡종도 많이 사육되고 있으며 재래종 육용계는 코니쉬와 체구가 비슷한 라리(Lary)라는 품종이 일반 부업 양계농가에서 주로 사육되고 있다.

5. 사료

사료자원의 부족으로 영양수준이 충분한 사료배합이 어렵고 부업양계 농가에서도 거의 배합사료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로 사료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탄수화물 원으로는 주로 밀, 보리, 옥수수수가 이용되고 단백질원으로는 어분 대부분의 원료를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다. 사료회사는 정부가 직영하는 곳과 3개소의 개인회사 뿐이고 이곳에서 생산된 배합사료의 가격은 톤당 140\$ 정도이다.

풍부한 석유자원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육류의 소비량도 급증하고 있는 중동의 여러나라에서는 대부분이 외국으로부터 고기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반면 가끔 생산물의 자체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있는 이란의 양계산업은 앞으로 계속적이고 급속도로 발전하리라 생각된다.